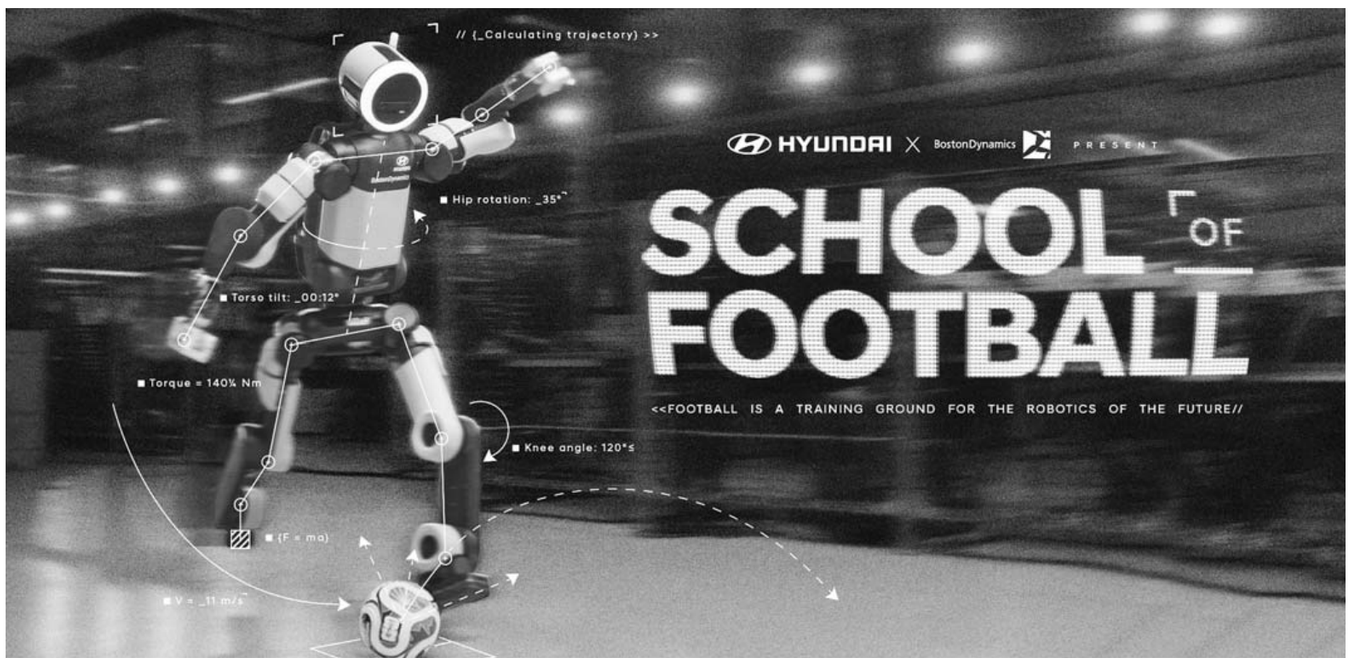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월드컵 캠페인 화제몰이

축구 동작 '스쿨 오브 풋볼' 영상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3천300만회 돌파
손흥민 감탄 전 세계 축구팬 이목 집중



현대자동차는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TM'의 공식 파트너로서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축구 동작 학습을 통해 로보틱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스쿨 오브 풋볼(School of Football)'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스쿨 오브 풋볼 캠페인 키비주얼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가 첨단 로보틱스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축구를 연계한 독창적 캠페인을 선보이며 피지컬 AI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했다.

현대자동차는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 TM'의 공식 파트너로서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축구 동작 학습을 통해 로보틱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스쿨 오브 풋볼(School of Football)'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차의 비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에서 출발한 월드컵 캠페인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Next Starts Now)'의 일환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인 축구라는 직관적인 테마를 통해 현대차가 보유한 로보틱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 스쿨 오브 풋볼 영상은 아틀라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론칭 필름(Film)부터 각종 축구 동작 연습 장면을 촬영한 훈련 영상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론칭 필름은 아틀라스가 축구라는 스포츠에 담긴 인류의 다양한 감정·에너지와 선수들의 역동적 움직임을 직접 보면서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훈련 영상에는 발놀림·패스·슈팅 등 축구의 기본 동작부터 다리를 꼬아 슛이나 크로스를 하는 축구 개인기 '라보나 킥(Rabona Kick)' 등 수준 높은 동작을 단계별로 학습하며 점차 정교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을 생생히 담았다.

29일 공개된 최종 영상에는 반복 훈련을 통해 축구의 역동적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한 아틀라스가 기존 라보나 킥에 수비수를 속이는 페인트 동작을 더한 고난도 기술 '고스트 라보나 킥(Ghost Rabona Kick)'을 성공시키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연출된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컴퓨터그래픽(CG) 효과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CES 2026에서 처음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다양한 동작을 스스로 학습해 실제 인간처럼 구현해 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에게 혁신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드컵을 통해 로보틱스의 미래를 선보인다는 차별화된 메시지도 전달한다.

아틀라스가 선보인 고스트 라보나 킥 등 고난도 동작은 단순 모션 재현을 넘어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AI를 통한 학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아틀라스는 실제 축구 선수의 동작 데이터를 모델링 한 뒤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최적의 동작을 도출해 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비정형 자세에서도 균형을 유지해 각종 축구 동작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피드백 기반 학습 알고리즘과 고도화된 전신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현대차와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이번 캠페인에서 ▲AI 기반 강화학습 역량 ▲정밀한 인간 동작 모사 기술 ▲하드웨어 제어 기술을 통합한 개발 역량을 보여주며 차세대 로보틱스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28일까지 공개된 론칭 필름과 3편의 훈련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3천300만 회를 돌파했다. 특히, 27일에는 현대자동차 브랜드 앰배서더인 손흥민 선수가 스쿨 오브 풋볼 캠페인 영상 내 아틀라스의 활약을 보고 감탄하는 영상도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차는 오는 6월 4일 캠페인 준비 과정에서 아틀라스의 훈련 등을 주도한 보스턴다이나믹스 관계자의 인터뷰가 담긴 메이킹 필름을 추가로 공개해 스쿨 오브 풋볼 캠페인의 기획 의도, 휴머노이드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학습·훈련의 중요성, 앞으로의 로보틱스 사업 비전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 부사장은 "현대차 월드컵 캠페인의 일환으로, 축구를 통해 로보틱스의 미래(Next)를 흥미롭고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선보인 피지컬 AI 기술을 바탕으로 로보틱스가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라고 보고 아틀라스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산업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인간 중심의 피지컬 AI 선도 기업으로서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인간과 조화로운 협업 및 공존 관계를 형성해 인류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진보하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기아 EV3, 유럽서 통했다

獨 車전문지 전기차 비교 평가 '종합 1위'

기아 EV3(사진)가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이 최근 실시한 도심형 크로스오버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아우토 자이퉁의 평가 결과는 유럽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도심형 크로스오버 전기차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EV3는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로 평가받았다.

평가 대상은 기아 'EV3', 포드 '푸마 Gen-E(Puma Gen-E)', 르노 '4 E-Tech', 스즈키 'e 비타라(e Vitara)', BYD '아토 2(Atto 2)' 등 5개 차종이며, ▲차체(Body) ▲주행 편의(Driving Comfort) ▲파워트레인(Powertrain) ▲역동적 주행 성능(Driving Dynamics) ▲친환경·경제성(Environment/Cost)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EV3는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총점 3천39점을 획득, 2위 르노 4 E-Tech(2천936점), 3위 BYD 아토 2(2천928점)를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다.

특히 EV3는 아우토 자이퉁의 실주행 테스트에서 335㎞의 항속거리를 기록해 비교 모델 중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며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최고 점수(727점)를 받았다.

또한 뛰어난 응답성, 강력한 가속 성능, 스티어링 휠의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공간 및 조작 편의성, 소재 등을 평가하는 '차체' 항목에서도 621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유로운 헤드룸 및 레그룸, 넓은 창문, 평평한 후석 바닥 구조 덕분에 실내 공간이 마치 라운지처럼 개방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아우토 자이퉁은 '주행 편의' 항목에서도 EV3에게 타 차종 대비 압도적인 점수인 704점을 부여하며, 독일의 열악한 도로 상태를 극복하는 섬세한 서스펜션과 더불어 등 전체를 감싸는 우수한 측면 지지, 긴 레그 서포트, 편안한 쿠션 조합의 시트가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을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EV3가 편안한 장거리 주행까지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전기차임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동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